

 행정자치부	보 도 자 료		작성과	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
	2017년 6월 27일(화) 석간 (6.27. 10:0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	담당자	과 장 이승억 팀 장 남성운 주무관 서영준
			연락처	042-481-1732 042-481-1735 042-481-1763

공공기관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안전경보체계 구축 착수 **- 국가기록원,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활용, 안전한 보존대책 마련 모색 -**

-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(이상진 원장)은 공공기관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대책의 일환으로,
 -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사전 멸실 위험 방지에 활용하는 「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안전경보체계」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현재, 공공기관은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 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전자문서, 동영상·소리, 이미지, 3D도면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을 대규모로 생산·활용하고 있고, 그 유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.
 - *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파일 유형은 3만2천여개(출처: 미국 비영리단체 File-Extensions.org)
- 그러나 전자기록물은 기술의존도가 높아 불과 몇 년 만에 읽기조차 불가능하고 쉽게 소실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아 미리 감지하지 않는다면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.

- 실제로 1990년대에 개발되어 국내에서 사용되었던 아리랑, 하나 워드 등의 S/W로 작성된 전자문서들 중에는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종료로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설치·구동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.
-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초부터 전자기록 기술정보 저장소 구축 및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,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.
- 이에,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'08년 이후 연구개발(R&D)을 수행하였으며, 그 결과,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.
 -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획득 및 변동을 감지하고, 멸실 위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구축될 예정이다.
- 앞으로, 획득한 기술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전 경보시스템인 「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안전경보체계」가 구축될 경우 공공기관은 보유 전자기록물의 위험지수를 신호등처럼 한 눈에 알 수 있어
 - 사전 대응이 가능해져, 전자기록물이 멸실 위험에 빠지기 전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“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공공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위험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며, 나아가 민간영역도 디지털 자료 안전 보존에 도움을 받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참고

공공기관 전자기록물 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

□ 사업개요

- (기간) '17.6.8~12.20 (6.5개월간)
- (예산) 292백만원 (일반연구비)
- (내용) 기술정보 DB 구축 및 위험평가·고지(告知) 기능 개발

□ 사업내용

- (정보획득) 위험인지 및 보존방안 결정을 위한 기술정보 DB 구축
- (상황분석) 기술정보 변화탐지 및 지능형 위험평가*·고지 기능 개발
 - * 위험요소별 범위(고·중·저) 및 추론규칙 정의 등 지능형 평가모델 도입 예정
- (적정조치) 유형별(문서·영상·음성) 장기보존 권고포맷 기준 도출

□ 향후일정

- 사업 착수보고(6.27), 사업진행(6~12월), 시범운영('18.1월)

[전자기록물 안전정보체계 구축(안) 개념도]

